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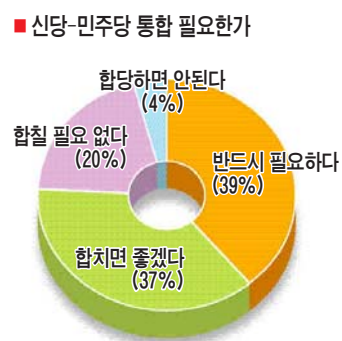
## 76% “신당·민주당 통합해야”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여론조사

호남 대표정당 ‘신당’ 69%·‘민주’ 31%

광주·전남지역 여론 주도층 10명 중 7명은 통합민주당(이하 신당)이 호남의 대표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6%가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 당의 합당시기에 대해서는 총선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으며, 합당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신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호남의 정치적 고립과 소외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에 맞설 대안

정당을 건설하고 또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양 당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지역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일보는 순화규 전 경기지사가 신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본보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 e-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147명의 패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호남 대표정당이 어딘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9%인 101명이 ‘통합민주당 신당’이라고 답했으며 ‘민주당’이라고 답한 패널은 31%인 46명에 그쳐, 사실상 신당을 지역 대표정당으



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의 합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41%인 6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5%인 51명도 ‘합치면 좋겠다’고 답변, 총 76%의 응답자가 양 당 합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0% (29명)였으며, 합당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 (6명)에 그쳤다.  
양 당의 합당 방식에 대해선 ‘민주당이 신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응답이 44% (6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해체 후 양 당이 합쳐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39% (58명)로 집계됐다. ‘각각 5대 5의 지분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답변은 10% (14명)였으며, ‘신당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7% (11명)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양 당이 합칠 경우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압도적인 94% (138명)가 오는 4·9총선 이전이라고 응답해 ‘총선 이전 합당과, 이를 통한 강력한 호남 정치세력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선 후 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6% (9명)에 그쳤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 패널=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신문사상 최초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지역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 526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수가 3천억원이 넘어갈 경우 제도적으로 다른 추가보상 방안은 없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가 3천억원을 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를 일으킨 또 다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 측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 배상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3일까지 타르로 인한 피해액은 함평군(김여장 76ha)이 새롭게 추가돼 신안·무안·영광·함평·진도 등 5개 시·군에 2만2천261ha (709건)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타르 오염이 심한 900여개 섬에 대한 타르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날도 1천107명이 타르 수거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총 5만5천357명이 방제작업에 참여, 1천410t의 타르를 수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스케이트 인파 휴일인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실내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주는 오는 16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로 떨어지는 등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교과서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야”

인수위 1차 보고,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활성화

이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 “막연하게 본 고사를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5, 6면> 이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차 종합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교육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통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현행 ‘3실 8수석’체제를 ‘1실 7수석’체제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위촉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7% 성장률 공약과 관련, 당장 올해 7%의 성장률 달성을 추진하기 보다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보고를 토대로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당선인 공약 정책 반영 추진 광주시·전남도 TF 가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 새 정부의 정책에 최우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공약실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 광주 첨단산단 R&D특구 지정 및 육성 등 이 당선인의 11개 대선 공약과 관련 최근 실무팀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대선공약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12 여성계박람회 개최 적극 지원▲서남해안 관광·해양레저 거점 육성▲2010년 F1(포블러린)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 13개 공약이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

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13개 공약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짜서 뒷받침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 관련 공약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협조하게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공약 건의자료 작성 및 대응능력 강구, 실천방안 모색 과정에서 전남발전연구원과 도정책자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해안 타르 피해조사 본격화

어업인·보험사 합동 1주일간...3천억 넘어 소송 불가피

함평까지 피해 확대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전남 해안 어장에 대한 피해조사가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7면>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피해 어업인

과 보험사측이 합동으로 12일부터 1주일간 일정으로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보험사측에선 피해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사감정과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이 파견한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어업인 대표로는 시군, 해조류연구센터, 수협 등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앞으로 피해배상은 피해 지역 수협

별로 구성돼 있는 피해대책위원회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종 산정해 보험사측과 협상, 그 결과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그러나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전남과 충남의 피해액수가 국제유조선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타르 한도를 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주) 조이트레블  
안락여동인 여행여행  
339,000  
369,000  
449,000  
429,000

광주·전남 TF 가동  
무의... 998,000  
2008년 새해... 129,000, 159,000, 189,000, 219,000, 249,000, 279,000, 309,000, 339,000, 369,000, 399,000, 429,000, 459,000, 489,000, 519,000, 549,000, 579,000, 609,000, 639,000, 669,000, 699,000, 729,000, 759,000, 789,000, 819,000, 849,000, 879,000, 909,000, 939,000, 969,000, 999,000

투안 ↔ 해안  
부동산  
599,000 ~  
179,000  
249,000  
179,000  
230,000  
180,000